

혼조성 본성은 해발 25m의 오자키 산 정상에 입지해 있습니다. 본성 토루는 안쪽은 남북 최대 약 124m, 동서 약 96m의 규모로 산기슭에 있는 세번째 성곽(공원광장) 과의 표고차는 약 21m입니다. 성곽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는 인공 절벽인 「기리기시」로 가로막혀 있습니다.

성곽에서 본성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면 마스가타노 고구치(ますがた こぐち 枡形の虎口 , 두 출입구를 결합한 사각형 구조)가 북, 동, 남쪽 3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 곳을 방어시설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. 그리고 조쿄 4년 평면도에 의하면 본성을 둘러싼 토루 위의 회랑외벽에 총이나 활 등의 사격용으로 쓰인 원형과 삼각형의 창문이 번갈아 설치되어 있어 방비를 중시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토루는 성곽과의 표고차에 맞추어 높이 4m남짓의 서토루와 1m정도의 동토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. 평면도에는 토루 위에 쌓은 회랑에 연결되어 6개의 망루가 그려져 있으며 이 중 토루 북동쪽 모퉁이, 히가시코구치 남쪽, 토루 남동쪽 모퉁이 3곳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망루의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.

본성에는 성주의 거관과 번청이 있어 정무의 중심 기능을 담당했지만 그 후 조쿄 4년(1687년)의 평면도 제작사이에 변화가 나타나서 성의 중심 기능이 세번째 성곽으로 옮겨졌습니다.

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.